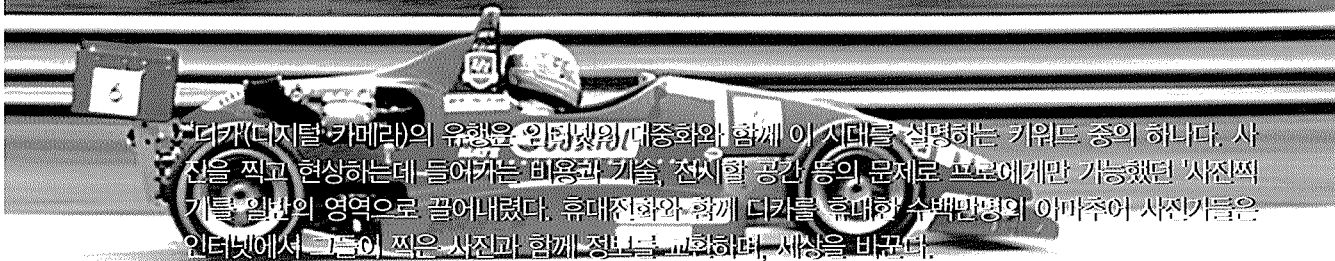


Digital Camera (4)



디카(디지털 카메라)의 유행은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이 시대를 설명하는 키워드 중의 하나다.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기술, 전시할 공간 등의 문제로 프로에게만 가능했던 사진찍기를 일반의 영역으로 끌어내렸다. 휴대전화와 함께 디카를 휴대할 수백만명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인터넷에서 그들이 찍은 사진과 함께 정보를 교환하며, 세상을 바꾼다.

글 : KESA 강중구 주임

내가 원하는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피사체)에 따라 그 촬영방법이 달라질 것이며, 그 환경에 따라서도 촬영법은 달라질 것이다. 또한, 지난달에 언급된 액세서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각각의 상황에 따른 촬영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속도감을 위한 촬영 - 패닝샷

속도감 나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찍는 사진 촬영법을 패닝샷이라고 한다. 주제만 본다면 고정되어 있지만 배경을 보면 속도감이 느껴짐을 알 수 있다. 주로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패닝샷을 즐겨 찍는다. 멋진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담기 위해서다.

다시 얘기하면 패닝샷이란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포착하는 사진 기법이며, 일반 촬영과 다른 점이라면 움직이고 있는 피사체를 부각시켜, 속도감을 나타내게 사진을 찍는 것이다.

바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속도감있게 촬영한다." 정

도가 될 것이다.

그럼 패닝샷 촬영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보자.

1. 일단 카메라의 모드를 설정해보자. 수동모드(M)나 셔터 스피드 우선모드(S)을 지원하는 카메라라면 M이나 S로 맞춘다.
2. 그럼 카메라 모드를 맞추었으면 셔터 스피드를 고정해 보자. 패닝샷이 잘 나오는 셔터 스피드는 1/60 정도면 충분하다.
3. 자동초점(AF)로 하다보면 카메라가 초점 잡는다고 허둥지둥하다 원하는 사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초점을 메뉴얼로 하고 초점거리를 무한대(보통 가까이서 찍는 경우는 없고 망원에서 찍으면 초점거리 무한대에서 피사체를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로 두는 것이 좋다.(일부 DSLR이나 하이엔드급 기종은 동체 추적 기능을 제공하는 기종도 있다.)

4. 패닝샷을 촬영하기 위한 위치를 선정해야한다. 자리를 잡고 찍고자 하는 곳을 뷰파인더나 LCD를 이용해 구도를 잡아본다. 이때 삼각대를 활용하면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 좋다.

5. 마지막으로 적당한 피사체를 기다리다 오는 것을 잘 보면서 카메라를 좌 우로 이동시키며 촬영을 하면 된다. 아래의 사진들은 예시 사진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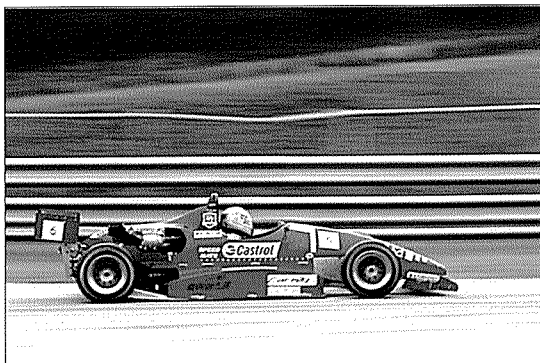


▶ 순간 포착을 위한 촬영

스포츠 신문 1면에 보면 역동적인 사진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진들이 순간을 잘 포착한 사진이 되겠다. 일단 아주 빠른 셔터스피드가 필요한데, 이 촬영 방법 역시 카메라의 모드는 셔터 스피드 우선이나 매뉴얼 모드를 활용하면 된다. 이 때 패닝샷과 반대로 셔터스피드는 1/1000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물론 그 이하의 느린 셔터 스피드도 장면에 따라서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뷰파인더에 눈을 붙이고 원하는 구도와 원하는 순간을 노려서 찍으면 된다. 이때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고속의 연사가 가능하다면 연사로 찍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여러 사진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고르면 된다.

아래 사진들 역시 그러한 예시 사진들이다.



다음호에서는 야경을 더욱 빛나게 찍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